

# 경기일보

HOME > 정치 > 정치일반

## 판문점 견학 1년만에 재개...개인·가족 신청 가능

☞ 강해인 기자 | Ⓞ 승인 2020.10.19 21:00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 재개에 나서면서 북측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통일부는 19일 "남북 및 3자(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 비무장화로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판문점을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 약 1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먼저 통일부에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설치해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판문점 견학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견학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도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견학 신청 기간도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대폭 줄이고, 견학 신청 연령도 만 10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견학이 가능해진다.

이번 판문점 견학 재개 구간은 남측 지역만 포함되기 때문에 남북 간 협의 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번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 북측에 관련 사실을 통지문이나 연락선을 통해 통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선언하면서 남북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자유왕래 등이 언급된 적이 있어 북측이 반응이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새로운 체계의 판문점 견학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판문점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개방 확대 등 DMZ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해인 기자